

# 일개 간호대학생의 학습유형과 자기주도적 학습

박지원<sup>1</sup> · 방경숙<sup>2</sup>

아주대학교 간호대학 교수<sup>1</sup>  
서울대학교 간호대학·간호과학연구소 부교수<sup>2</sup>

## Learning Style and Self-directed Learning of Nursing Students at One University

Jeewon Park<sup>1</sup> · Kyungsook Bang<sup>2</sup>

<sup>1</sup>Professor, College of Nursing, Ajou University,

<sup>2</sup>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 The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identify the preferences for learning style and the degree of self-directed learning and influencing factors on it among nursing students working on a Bachelor of Science in a nursing program at Suwon. **Methods:** The study sample included 156 nursing students. A self-report questionnaire was used to assess the data. The data was analyzed using the SPSS/WIN program for descriptive and inferential statistics. **Results:** Most of the students preferred lectures rather than discussion or team projects as a teaching method. Students preferred deliberating, sensing, and the use of visuals for their learning style. In addition, they favored sequential learning over comprehensive learning. Self directed learning had better outcomes in 3rd and 4th year students than 1st or 2nd year students. Additionally, active learners and high achievers who had a good GPA showed higher self directed learning than the others. **Conclusion:** In order to maximize students' self-directed learning, study guidance will be necessary for freshmen and for some who experience difficulties in studying nursing courses. Nursing faculty members should pay close attention to facilitate student's self directed learning, and encourage more discussions in the classes.

**Key Words:** Self-directed learning, Learning style, Nursing students

##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자기주도적 학습은 교육계의 화두가 될 만큼 가장 많이 거론되는 용어의 하나이다. 지식과 정보의 발달이 빠른 현대사회에서는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서 뿐 아니라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고 활용하는 평생학습자로서의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대학교육에서도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향후

자신의 전공분야에서 충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자기발전을 이루도록 이끌어 주는 방법이 될 것이다. 간호사 역시 새로운 간호학적, 의학적 지식의 함양을 위해 보수교육을 의무화 하는 등 계속교육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전문직이며, 따라서 간호교육과정동안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은 간호교육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자기주도적 학습이란 평생학습, 적극적이고 독립적인 학습, 학생 중심의 교육 등으로도 불리는데, Kocaman, Dicle 과 Ugur (2009)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개인이 출선하여 학습요구를 진단하고 학습에 필요한 자원을 확인하며 적

**주요어:** 학습유형, 자기주도적 학습

**Corresponding author :** Kyungsook Bang, College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28 Yeongeon-dong, Jongno-gu, Seoul 110-799, Korea.  
Tel. 82-2-740-8819, E-mail: ksbang@snu.ac.kr

투고일 2010년 11월 9일 / 게재확정일 2010년 12월 8일

절한 학습전략을 선택하고 학습결과를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한 Knowles의 정의를 가장 적절한 것으로 보았다.

최근 간호교육계에서도 자기주도적 학습에 대한 관심이 많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국내 연구는 국외연구만큼 활발하지는 못한 상황이다. 다양한 교육방법에 따른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차이 (김근곤, 윤진, 최경윤, 박선영, 배진희, 2008; 배영숙, 이숙희, 김미희, 성광순, 2005), 자기주도성 영향요인 (오원옥, 2002), 자기주도적학습과 학업능력과의 관련성 (양진주, 박미영, 2004; 조학순, 2007)에 대한 몇 편의 연구들이 있으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 및 학습유형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 매우 미흡한 단계에 있다.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학생들이 선호하는 교수학습방법은 어떤 것이며, 학습유형은 어떠한가에 대한 정보가 요구된다. O'Shea (2003)는 간호학 분야에서 자기주도적 학습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고찰한 결과 자기주도적 학습은 선택과 자신감, 자율성, 동기화의 증가 및 평생학습에 대한 기술의 발달 등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고 그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자기주도적학습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학습유형과 선호하는 학습방법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개 대학의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유형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및 이와 관련된 요인들을 파악해 봄으로써 효율적인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교육 대상자인 간호대학생의 학습유형과 선호하는 수업방법 및 이들과 자기주도적 학습과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교육방법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간호대학생이 선호하는 수업방법과 학습유형을 파악한다.
- 대상자의 학년 및 성적에 따른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차이를 비교한다.
- 대상자가 선호하는 수업방법 및 학습능력에 따른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차이를 비교한다.

##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일개 간호대학 학생들의 선호하는 수업방법과 학습유형을 살펴보고 학습유형 및 성적에 따른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 연구대상

연구대상자는 일개 간호대학의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학생 전원을 근접모집단으로 하였으며, 연구참여에 동의하고 설문에 응답한 156명이 연구대상이 되었다.

### 3. 연구도구

#### 1) 학습유형

학습유형 도구는 학습자들의 학습양식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4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의 Soloman과 Felder가 1999년 개발한 'The index of learning style'을 서울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번역하여 소개한 도구이다. 각 문항에 대해 a, b, 두 개씩의 답가지가 있어 자신의 성향과 가까운 쪽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며, 학습유형을 분류할 때는 4가지 영역에 각 11개씩의 문항으로 구분되어 있는 기록지에서 a응답이 많은지 b응답이 많은지에 따라 적극형/숙고형, 감각형/직관형, 시각형/언어형, 순차형/총체형의 서로 대비되는 것 중 각각 한 가지씩 한 사람당 4가지 유형이 나오게 된다. Cook (2005)의 연구에서 적절한 신뢰도와 타당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 2)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은 한국교육개발원 (이석재, 2003)에서 대학생 및 성인의 생애능력 중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한 것으로, 학습계획, 학습실행, 학습평가의 3가지 능력요소를 8가지 하위요소로 구분하여 각 하위요소마다 5개 문항씩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구개발 당시 Cronbach's  $\alpha = .92$ 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91이었다.

#### 4. 자료수집

대상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설문 응답방법을 설명한 후 연구참여에 동의하는 경우 무기명으로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09년 10월부터 12월까지였다.

#### 5.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SPSS/WIN 12.1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학년 및 성적, 선호하는 수업방법, 학습능력에 따른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다.

많았다. 성적은 3.0 이상 4.0 미만이 가장 많았다(표 1).

#### 2. 선호하는 수업방법 및 학습유형

학생들은 강의(76.9%)를 가장 선호하였으며, 다음 실험실습(29.5%), 토론식(21.2%), 인터넷강의(16.7%)의 순이었다. 팀프로젝트를 선호한다고 답한 학생은 9.0%에 불과하였다. 학습유형에서는 적극형보다 숙고형이, 직관형보다 감각형이 많았다. 또한 학생들은 언어형보다 시각형 자료를 선호하였으며, 총체형보다 순차형의 강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 3. 자기주도적 학습

##### 1) 영역별 자기주도적 학습

자기주도적 학습은 학습계획, 실행, 평가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들은 학습평가, 학습실행, 학습계획의 순으로 자기주도적 학습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에 대한 노력 귀인, 기본적 자기관리 능력에

### 연구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91%는 여대생이었으며, 학년은 1학년이 가장

표 1. 일반적 특성 (N=156)

변수	구분	n (%)
성별	남자	14 (9.0)
	여자	142 (91.0)
학년	1	68 (43.6)
	2	34 (21.8)
	3	36 (23.1)
	4	18 (11.5)
성적 (점)	< 3.0	31 (20.1)
	3.0~3.49	53 (34.4)
	3.5~3.99	51 (33.1)
	≥ 4.0	19 (12.3)

표 2. 선호하는 수업방법 및 학습유형 (N=156)

변수	구분	n (%)
선호 수업방법*	강의식	120 (76.9)
	토론식	33 (21.2)
	팀프로젝트식	14 (9.0)
	인터넷강의	26 (16.7)
	실험실습	46 (29.5)
학습유형	적극/숙고	64 (41.0) / 92 (59.0)
	감각/직관	131 (84.0) / 25 (16.0)
	시각/언어	119 (76.3) / 37 (23.7)
	순차/총체	89 (57.1) / 67 (42.9)

\*복수응답

표 3. 영역별 자기주도적 학습

(N=156)

영역	문항 수	영역별 M±SD	문항별 M±SD	세부 영역	M±SD
학습계획	15	49.06±7.54	3.27±0.50	학습욕구진단	17.21±2.72
				목표설정	16.80±3.59
				학습을 위한 자원파악	15.06±3.53
학습실행	15	51.20±6.44	3.41±0.43	기본적 자기관리능력	17.61±2.97
				학습전략의 선택	16.37±2.79
				학습실행의 지속성	17.22±2.50
학습평가	10	34.73±4.93	3.47±0.49	결과에 대한 노력 귀인	18.40±2.68
				자기성찰	16.33±3.24

대한 점수가 높았으며, 학습을 위한 자원과악이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표 3).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주도적 학습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주도적 학습은 1, 2학년보다 3학년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 $p=.002$ ), 3.5 미만보다 4.0 이상인 경우가 유의하게 높았다 ( $p=.003$ ) (표 4).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년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학습계획과 학습실행이었으며, 성적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목표설정, 기본적 자기관리 능력, 학습전략의 선택, 자기성찰이었다 (표 5).

3) 선호하는 수업방법과 학습유형에 따른 자기주도적 학습

강의식, 토론식, 팀프로젝트, 인터넷강의, 실험실습의 다섯가지 수업방법에 대해 각각 선호 여부에 따라 그룹간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비교한 결과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습유형에 따른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은

적극적인 학습자가 숙고하는 학습자보다 높은 것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p=.008$ ) (표 6).

논 의

대상 학습자의 효율적인 교육방법에 대한 모색은 모든 교육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학습유형과 선호하는 교육방법, 그리고 자기주도적 학습이 이들과 관련성이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학습유형에서 직관보다 감각을 선호하였는데 이는 대만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Li, Chen, Yang, & Liu, 2010) MBTI를 이용하여 학습유형을 조사한 결과 직관보다는 감각을 선호하는 학생이 훨씬 많았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감각적인 학습자는 정보가 어떻게 현실세계와 연결되는지를 알 때 가장 잘 기억하고 이해한다고 한다. 따라서 수업 중에도 개념과 과정에 관

표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주도적 학습

(N=156)

변수	구분	n	M±SD	t or F	p	Scheffe
성별	남자	14	132.71±19.19	-0.543	.588	
	여자	142	135.23±16.25			
학년	1	68	132.25±13.60	5.336	.002	1, 2<3
	2	34	129.79±15.58			
	3	36	142.81±19.60			
	4	18	139.61±15.83			
성적 (점)	< 3.0 <sup>a</sup>	31	127.94±16.64	4.811	.003	a, b<d
	3.0~3.49 <sup>b</sup>	53	133.66±15.63			
	3.5~3.99 <sup>c</sup>	51	136.66±16.75			
	≥ 4.0 <sup>d</sup>	19	145.00±13.37			

표 5. 학년과 성적에 따른 영역별 자기주도적 학습

(N=156)

변수	구분	n	학습계획		학습실행		학습평가			
			M±SD	F (p) Scheffe	M±SD	F (p) Scheffe	M±SD	F (p) Scheffe		
학년	1	68	3.19±0.43	6.602 (<.001)	3.33±0.39	3.965 (.009)	3.45±0.39	1.717 (.166)		
	2	34	3.07±0.49		3.35±0.40		1<3		3.35±0.55	
	3	36	3.51±0.56		3.60±0.48				3.60±0.59	
	4	18	3.46±0.46		3.50±0.43				3.53±0.51	
성적 (점)	< 3.0 <sup>a</sup>	31	3.06±0.49	3.360 (.020)	3.27±.40	4.430 (.005)	3.30±.54	3.682 (.013)		
	3.0~3.49 <sup>b</sup>	53	3.28±0.50		3.36±.43		a, b<d		3.41±.47	a<d
	3.5~3.99 <sup>c</sup>	51	3.30±0.48		3.44±.45				3.56±.49	
	≥ 4.0 <sup>d</sup>	19	3.51±0.53		3.70±.27				3.70±.37	

표 6. 선호하는 수업방법과 학습유형에 따른 자기주도적 학습

(N=156)

변수	구분		n	M±SD	t	p		
선호 수업방법	강의식	선호함	120	133.66±16.68	-1,871	.063		
		선호안함	36	139.47±15.19				
	토론식	선호함	33	137.70±15.11				
		선호안함	123	134.28±16.82				
	팀프로젝트식	선호함	14	137.00±16.71				
		선호안함	142	134.80±16.51				
인터넷강의	선호함	26	136.54±13.75	0,520	.604			
	선호안함	130	134.69±17.01					
실험실습	선호함	46	137.89±17.31	1,422	.157			
	선호안함	110	133.79±16.05					
학습유형	적극/숙고	적극형	64	139.17±16.59	2,689	.008		
		숙고형	92	132.10±15.86				
	감각/직관	감각형	131	135.52±16.65				
		직관형	25	132.28±15.61				
	시각/언어	시각형	119	135.83±15.69			1,132	.260
		언어형	37	135.32±18.79				
	순차/총체	순차형	89	135.80±16.40			0,705	.482
		총체형	67	133.93±16.66				

련된 예시를 많이 들어주는 것이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며 언어보다는 시각적인 것을 선호하는 학습자가 많으므로 시각적인 보조자료를 많이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학습유형 중 적극형보다 숙고형이 많으며 수업방법에서도 강의식을 많이 선호하는 것과는 달리 O'Kell (1988)의 연구에서는 적극형이 70%를 차지하였으며, 가장 선호하는 수업방법도 토론식이라고 답하여 본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이는 문화적인 차이로도 볼 수 있는데 학생들의 학습유형과 선호도를 고려한 강의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나라 학생들은 좀 더 적극적인 학습자가 될 필요가 있으며 수업 중에도 토론문화에 더 익숙해질 수 있도록 발표와 토론을 격려하며 수업 참여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학습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활동과 숙고하는 태도를 균형 있게 갖추고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학습유형 중 숙고하는 학습자보다 적극적인 학습자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우수하다는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성급하지는 않되 학습에 있어 보다 더 적극적인 태도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학습유

형의 분류는 본 연구와 다른 도구를 사용하였지만 위의 O'Kell (1988)의 연구에서는 적극적 성향의 converger와 assimilator가 diverger와 accomodator보다 자기주도적 학습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1, 2학년보다 3, 4학년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 3학년보다 4학년이 자기주도성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오원옥 (2002)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며, 이는 3학년부터 전공과목 강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임상실습이 이루어지면서 1, 2학년의 수동적인 학습태도에서 벗어나 더 적극적으로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바람직한 변화라 할 수 있다. 여러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도 성별이나 전공에 따른 차이는 없으나 학년이 높을수록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은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김인식, 이진희, 2003). 중고등학교 교육과 대학교육은 교과 운영과 수업방법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는데, 특히 1, 2학년들은 학습을 위한 자원을 파악하고 학습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각 대학에 마련되어 있는 교수학습지

원센터 등을 적극 활용하여 신입생들에게 대학 공부를 스스로 잘 조직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을 파악하여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학습 관리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전공학습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성적이 낮은 학생보다 월등한 학생이 학습계획이나 실행, 평가 등 모든 면에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우수하였는데 목표를 세우고 자기관리를 잘하며, 자기에게 맞는 적절한 학습전략을 선택하고 시험 후에도 성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성찰해보는 습관이 성적을 잘 관리하는 비결로 나타났다. 조학순 (2007)의 연구에서도 자기주도적학습은 비판적 사고성향이나 학업성취도와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 바 있다. 성인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교육인만큼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의 학업에 대해 조언할 때 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동기화하고 본인의 학습유형에 적절한 방법을 찾을 수 있게 하며 반드시 시험이나 과제 후에도 스스로를 평가해보는 습관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은 자아존중감과도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신을 긍정적이고 가치있는 존재로 파악하고 자신의 학습 방향을 스스로 결정하며 책임지는 성향의 학생은 자기주도적 학습을 잘 할 뿐 아니라 (오원옥, 2002) 성적도 좋은 결과를 거두며, 이러한 결과는 다시 자아존중감을 고양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많은 수업과 실습에 지치고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학생들은 자기존중감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 (정미현, 신미아, 2006). 따라서 자기주도적 학습을 유도하는 것은 간호학생들의 전반적인 자존감과 사기를 진작시키고 전공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바람직한 교육방법이 될 것이다. 자기주도적 학습은 임상 수행능력과도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양진주, 박미영, 2004), 이론 강의와 달리 자신의 시간 및 실습내용 운용에 있어 개별적인 차이가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실습과목의 특성이 있으므로 간호학 전공 학생들에게는 자기주도적 학습이 더욱 많이 요구될 것이다.

다양한 학습형태에 따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변화되는가를 본 연구들을 살펴보면, Kocaman 등 (2009)의 연구에 따르면 문제중심 교육과정 (Problem-based curriculum)에 들어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종단연구를 한 결과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1

학년과 다른 학년들과는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배영숙, 이숙희, 김미희와 선광순 (2005)의 연구에서도 한 학기 동안 문제중심학습을 적용받은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학습의 자기주도성이 유의하게 높았고 김근곤, 윤진, 최경윤, 박신영과 배진희 (2008)의 연구에서도 전공 간 협력 프로젝트 학습이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향상에 효과적이었음을 보고한 바 있다. Timmins (2008)는 자기주도적 학습은 학생 혼자서 알아서 하도록 두는 학습방법이 결코 아니며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향상을 위해서는 교수자는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적절한 수업 자료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성향을 파악하며 상호관계 속에서 일대일의 강화된 교수법을 이용하는 등 교수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강의방식이 아닌 다양한 교육방법의 적용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대상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강의라고 하였지만 토론이나 인터넷 강의에 대해 호의적인 학생들도 상당 수 있으므로 강의식의 수업에서도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각 대학에서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온라인 강의나 게시판 이용한 온라인 토론, 질의 및 응답 등을 적극 활용한다면 수업시간에 미처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에 대해 시공간을 초월하여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 결론

초등, 중등 과정부터 강의식 수업에 길들여져 온 우리나라 간호대학생들은 대다수가 강의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적극적인 학습유형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인 학습유형의 학생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도 더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 교육대상자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교수의 면밀한 계획 하에 학생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수업운영방식을 적용함으로써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자기주도 하에 학습을 계획하고 실행하게 하는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기주도적 학습이 부족한 대학 1, 2학년들을 대상으로 자기주도적 학습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며,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에게도 학교의 학습지원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학습방법을 안내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그 효과를 보는 연구가 진행될 것을 제안한다.

## 참 고 문 헌

- 김근곤, 윤진, 최경윤, 박선영, 배진희(2008). 전공 간 협력 프로젝트 학습이 대학생의 의사소통, 문제해결,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미치는 효과.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4(2), 252-216.
- 김인식, 이진희(2003). 대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준비도 분석. *교육이론과 실천*, 13(3), 129-154.
- 박정혜(2009). *협동학습이 간호학생의 학습성과와 수업경험에 미치는 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배영숙, 이숙희, 김미희, 선광순(2005). 문제중심학습이 자기주도성과 비판적 사고성향에 미치는 효과.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1(2), 184-190.
- 양진주, 박미영(2004).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과 자기주도적 학습의 관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0(2), 271-277.
- 오원옥(2002). 간호대학생의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적 영향요인. *대한간호학회지*, 32(5), 684-693.
- 이석재(2003). *생애능력 측정도구 개발연구: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정미현, 신민아(2006).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전공만족도와의 관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2(2), 170-177.
- 조학순(2007).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자기주도학습 및 학업성취도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정보학회지*, 32(2), 57-72.
- Cook, D. A. (2005). Reliability and validity of scores from the index of learning styles. *Academic Medicine*, 80(10 Suppl), S97-S101.
- Fisher, M. J., & King, J. (2010). The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scale for nursing education revisited: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Nurse Education Today*, 30(1), 44-48.
- Hendry, G. D., & Ginns, P. (2009). Readiness for self-directed learning: validation of a new scale with medical students. *Med Teach*, 31(10), 918-920.
- Knowles, M. S. (1975). *Self-directed learning: A guide for learners and teachers*. New York: Cambridge book company.
- Kocaman, G., Dicle, A., & Ugur, A. (2009). A longitudinal analysis of the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level of nursing students enrolled in a problem-based curriculum.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48(5), 286-290.
- Levett-Jones, T. L. (2005). Self-directed learning: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for undergraduate education. *Nurse Education Today*, 25, 363-368.
- Li, Y. S., Chen, P. S., & Tsai, S. J. (2008). A comparison of the learning style among different nursing programs in Taiwan: Implications for nursing education. *Nurse Education Today*, 28, 70-76.
- O'Kell, S. P. (1988). A study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learning style, readiness for self-directed learning and teaching preference of learner nurses in one health district. *Nurse Education Today*, 8, 197-204.
- O'Shea, E. (2003). Self-directed learning in nurse education: a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43(1), 62-70.
- Rakoczy, M. (1995). Learning styles of nursing students: A 3-year cohort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Professional Nursing*, 11(3), 170-174.
- Smith, A. (2010). Learning styles of registered nurses enrolled in an online program. *Journal of Professional Nursing*, 26(1), 49-53.
- Timmins, F. (2008). Take time to facilitate self-directed learning. *Nurse Education in Practice*, 8, 302-305.